

# 安 “탈 기득권·스펙...정치 원석 찾겠다”

### 내달 10일 창준위 발족 인재 영입 본격화

### 정치신인 지원센터·청년위 개설 새인물 육성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일은 내년 1월10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당의 규모보다는 새 정치를 지향하는 차별화된 정당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재 영입과 관련, “기성권력이나 학벌, 스펙 등으로 다듬어진 가공된 보석보다는 묻혀있는 원석이나 남중지추를 찾아 미래세력으로 만들고 키우는 게 새로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후속 신당 창당 작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현역의원 영입 계획에 대해서는 “기성(정치)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며 “규모 있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현역 의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인재에 대해서는 “새 정당엔 기존에 알려진 분들, 새정치에 동참하는 뜻있는 의원들,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도 필요하지만, 정치불신이 심각한 상황에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이 어떤 분들일까 고민해봤다”며 “서민 대중의 고통을 내 일처럼 이해하고,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묵묵히 일하며 공헌도가 높은 분들 역시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당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도 기득권은 없다. 당에서 만든 기준, 절차, 정치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며 “저

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 “어떠한 직도 당연히 제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인 분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치신인 육성과 관련, 신진 인사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현역의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신진예비후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당 행사와 활동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30~40대의 정치 진출과 관련,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트뤼도 총리 등 사례를 든 뒤 이번 총선에서 외부의 청년층을 영입해 국회에 진출시키되, 장기적으로는 중앙당 청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현역의원들의 경쟁상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당의 청년 기준으로는 39세 이하를 제시했다.

그는 일각에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없어 대선만 보고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누구든 대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며 “100석이라고 말한 건 목표가 아니라 마지노선이다. 새누리당이 200석 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여전히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에는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고 증명해 보여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이외에 부산이나 광주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현재로서는 변경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민환 문-문 대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원 등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

### 약칭 ‘더 민주당’...安 흔적 지워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약칭은 ‘더민주당’으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3월 26일 김한길 당시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은 불과 1년9개월 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정치연합은 안 의원과의 합당과

정에서 사라진 ‘민주당’이라는 명칭을 회복하고 동시에 탈당한 안 의원의 ‘새정치’라는 흔적을 당명에서도 지우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 윤장현 광주시장이 ‘더불어 사는 광주’라는 모토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멀어져가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란 단어를 당명으로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각오했지만 약칭인 ‘더민주당’을 놓고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安 지지율 상승세 심상찮다

### 5주연속 상승 16.5%P...대선 文-金과 오차범위 접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약 8개월 만에 앞서며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12월 4주차(21~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표의 지지율은 17.6%로 17.1%인 김 대표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 의원은 11월 3주차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16.5%의 지지율을 기록, 문 대표와 김 대표를 턱밀까지 추격했다.

문 대표는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지만 김 대표의 하락폭(3.2%포인트)이 더 커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표가 주간 단위 조사에서 김 대표를 앞선 것은 4·29 재보선 패배 직전인 4월 5주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안철수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7.2%로 가장 높았다. 또 새정치연합이 22.4%를 기록했지만 ‘안철수 신당’이 19.0%로 새정치연합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안 의원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김 대표와 문 대표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등 계층 간 지지층 이동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4일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千 “安과 같이 갈 수 있지만 새인물 필요”

<정배>

### 국민회의 여의도 당사 공개...오늘 광주서 기자회견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전정배 의원은 28일 안철수 신당에 대해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대선빌딩 7층에 마련한 당사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

힌 신당의 ‘합리적 개혁노선’에 대해 “이는 중용의 가치 아래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까지 모아서 강한 개혁정당을 만들겠다는 우리 국민회의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기존의 낡은 기득권에 의존해 정치생명을 연장한 사람으로 이뤄진 정당으로는 야권의 주도세력 교체도,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도, 무엇보다도 안 의원이 그토록 바라는 새 정치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 점을 언급, “호남 민심은 안 의원이 기득권에 찌든 정치인들과 손잡고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회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 정치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뉴DJ가 낡은 세력·낡은 인물과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를, 호남에서부터 패권 체제를 철저히 해체하기를 바란다”며 “새인물”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 입주

식을 하고 당 로고와 상징색을 공개했다. 국민회의 로고는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하는 ‘정치혁명의 햇볕’이 되려는 의미에서 햇볕을, 상징색은 젊음과 열정을 담은 오렌지색을 선택했다.

한편, 천 의원은 29일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뒤늦게 공식 사과한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데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與, 정치신인 10%·여성 20% 공천 가점

### 지자체장엔 10% 감점...공천위, 최고위에 보고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각각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10%의 감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당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경선에서 정치 신

인에게는 10%의 가점을, 신인이면서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20%의 가점을 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장의 경우 상징적으로라도 10%의 감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위는 또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 2/3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